

1376년 鴻山 전투의 意義와 戰場에 대한 재고찰

임 형 수*

1. 머리말
2. 왜구의 금강 유역 침입과 홍산 전투의 전개 과정
3. ‘鴻山大捷’의 결과와 의의에 대한 재검토
4. 홍산 전투의 戰場 문제
5. 맺음말

1. 머리말

14세기 중반부터 동아시아는 日本의 南北朝 내란에서 파생된 일종의 무장 해적 집단인 倭寇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극심한 침탈에 시달려야만 했다. 한반도는 지리적 특성상 3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거의 모든 지역이 해양을 통해 내침하는 왜구의 약탈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본래 왜구의 침략은 삼국시대

* 목원대학교 역사학과 강사

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1350년(충정왕 2) 이후에는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창궐하였다. 왜구는 처음에 남해안 일부 지방을 노략질하기 시작하여 점차 전국의 연해 지역으로 약탈을 확대해나갔고 심지어 수도인 開京을 압박하기도 하였다. 특히 禡王代(1374~1388)에는 침략 규모와 횡수가 이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륙 깊숙이 횡행하면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등 더욱 난폭해지는 성향을 띄었다. 당시 고려 조정은 왜구를 막기 위해서 일본에 사절을 파견하여 禁壓을 요청하거나 軍役을 개편하고 水軍을 육성하는 등 여러 가지 방책을 마련하였으며, 동시에 적극적인 무력 토벌을 단행하여 각지에서 상당한 승전을 거두기도 하였다.

종래 연구는 왜구로 인한 피해상과 고려의 극복 노력을 검토¹⁾하거나 왜구의 주체와 성격 등 존재 자체를 규명²⁾하는 데에 집중하

1) 申奭鎬, 「麗末鮮初의 倭寇와 그 對策」, 『國史上的 諸問題』 3, 國史編纂委員會, 1959. 李鉉涼, 「倭寇」, 『한국사』 8, 國史編纂委員會, 1974. 孫弘烈, 「高麗末期의 倭寇」, 『史學志』 9, 1975. 羅鐘宇, 「高麗 末期의 麗·日關係—倭寇를 中心으로—」, 『全北史學』 4, 1980 ; 『韓國中世對日交涉史研究』, 圓光大學校出版局, 1996. 韓容根, 「高麗末 倭寇에 對한 小考」, 『慶熙史學』 6·7·8合輯, 1980. 閔賢九, 「高麗後期の 軍制」, 『高麗軍制史』, 陸軍本部, 1983. 車勇杰, 「高麗末 倭寇防守策으로서의 鎭戍과 築城」, 『史學研究』 38, 1984. 方相鉉, 「朝鮮前期 水軍制度」, 民族文化社, 1993. 朴宗基, 「고려 말 왜구와 지방사회」, 『한국중세사연구』 24, 2008. 이재범, 「고려 후기 왜구와 해양방어대책」, 『이순신연구논총』 13, 2010. 김보한, 「고려·조선의 對일본 외교와 왜구—13~15세기 금구(禁寇) 외교와 그 성과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7, 2014.

2) 青山公亮, 『日麗交涉史の研究』, 明治大学文学部文学研究所, 1955. 田中健夫,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東京大学出版会, 1959.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上, 吉川弘文館, 1965. 田村洋幸, 『中世日朝貿易の研究』, 三和書房, 1967. 村井章介, 『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 校倉書房, 1988. 川添昭二, 「倭寇」, 『九州の中世社会』, 海島社, 1997. 金琪燮, 「14세기 倭寇의 동향과 고려의 대응」, 『韓國民族文化』 9, 1997. 李頌, 『倭寇と日麗關係史』, 東京大学出版会, 1999. 김보한, 「中世麗·日 관계와 倭寇의 발생 원인」, 『왜구·위사 문제와 한일관계』, 景仁文化社, 2005. 이영, 『왜구와 고려·일본 관계사』, 혜안, 2011. 李泰勳, 「〈삼도왜구〉의 <삼도>에 대한 이영 說의 재검토」, 『한일관계사연구』 43, 2012. 이영, 『팍스 몽골리카의 동요와 고려 말 왜구—동아시아의 파이렛츠(PIRATES)와 코르세어(CORSAIRS)—」, 혜안, 2013.

였다. 근자에는 사료상의 왜구 침입 양상과 토벌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³⁾되는 한편, 특정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검토⁴⁾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경향에 힘입어 본고는 고려와 왜구 간의 전투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재검토함으로써 문헌 해석의 실증적인 측면을 강화하려고 한다. 그 일환으로 우선 왜구 토벌에서 가장 빛나는 전적 가운데 하나인 홍산 전투를 살펴볼 것이다.

홍산 전투는 1376년(우왕 2) 7월에 崔瑩이 지금의 忠淸南道 扶餘郡 鴻山面에서 왜구를 소탕한 사건을 말하며 羅世·崔茂宣의 鎭浦大捷, 李成桂의 荒山大捷, 鄭地의 南海大捷 등과 함께 소위 ‘大捷’으로 손꼽힌다. 그런데 홍산 전투와 관련된 사료를 찾아보면 전투의 규모나 전과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는 등 ‘대첩’의 면모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홍산 전투가 벌어진 장소로 알려져 있는 北村里 소재의 胎峰山城에 대해서도 충분한 문헌적 근거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착안하여 먼저 홍산 전투가 일어난 배경과 전개 과정을 설명한 다음, ‘대첩’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다시 논해보고, 차제에 태봉산성이 과연 홍산 전투의 戰場으로 타당한지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3) 崔炳鈺 외, 『倭寇討伐史』, 國防軍史研究所, 1993. 李嶺, 위의 책, 1999, 240~256 쪽. 정영현, 「고려 禑王代 倭寇의 동향과 성격 변화」, 『역사와 세계』 33, 2008. 이영, 「왜구의 단계별 침구 양상과 고려의 대응」, 『동북아문화연구』 31, 2012.

4) 李在範, 「고려말 조선전기의 왜구와 사천」, 『軍史』 58, 2006. 이영, 『잊혀진 전쟁 왜구—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에피스테메, 2007. 이재준, 「高麗 末 金成兩 부대의 왜구토벌에 관한 군사학적인 검토」, 『軍史』 80, 2011. 윤용혁, 「고려 말의 왜구와 서산 부석사」, 『역사와 담론』 69, 2014. 이정란, 「왜구의 충청 지역 침구의 시기별 추이와 고려의 대응」, 『사림』 52, 2015. 허인욱, 「고려 말 왜구의 전북지역 침입 연구—全州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46, 2015.

2. 왜구의 금강 유역 침입과 홍산 전투의 전개 과정

1374년(공민왕 23)에 恭愍王이 시해되자 우왕은 10세의 어린 나이로 守侍中 李仁任의 추대를 받아 즉위하였다. 그런데 北元은 공민왕의 對明外交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터라 瀋王 暉의 손자인 脫脫不花를 고려국왕으로 옹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⁵⁾ 1375년(우왕 1) 8월에 瀋王 母子가 遼陽의 信州에 당도하자 고려의 혼란은 가중되었고 여러 道의 병사를 징집하여 북방으로 보냄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9월에 수도의 전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왜구는 德積島와 紫燕島(영종도)에 결집하였고 호시탐탐 개경을 침입할 기회를 엿보았다. 고려 조정은 여러 도의 병사를 다시 징발하여 최영과 이성계로 하여금 각기 東江과 西江을 방어하게 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병사를 되돌려 보냈다는 기록⁶⁾이 있어서 왜구의 위협은 일단 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두 섬에 결집한 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들은 개경 진입이 어렵게 되자 그 반대 방향에 있는 楊廣道 연안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⁷⁾ 같은 달에 왜구가 寧州(천안시), 木州(천안시 목천읍), 瑞州(서산시), 結城(홍성군 결성면)을 침범했으며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향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양광도의 방어를 담당할 인물은 楊廣道安撫使 鄭庇와 楊廣道都巡問使 韓邦彦이었는데, 그들은 결국 10월에 憲府로부터 왜구를 막지 못했다(不能禦倭)는 탄핵을 받아 戍卒로 編配되었고 대신에 禮儀判書 朴仁桂가 楊廣道安撫使로 임명되었다. 박인계는 부임하자마자 곧바로 왜선 2척을

5) 金惠苑, 『高麗後期 瀋王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1999, 139쪽.

6) 『高麗史』 권133, 列傳46 辛禰 원년 9월.

7) 왜구는 2년 뒤인 1377년에도 江華에서 楊廣道에 이르는 濱海 州郡을 함락시켰는데, 그 이유는 최영이 군사를 거느리고 막으러 내려온 틈을 타서 京城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高麗史節要』 권30, 辛禰 3년 5월).

섬멸하는 공을 세웠으며 민심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어진 장수(賢將)’로 일컬어졌다고 전한다.⁸⁾ 아울러 고려 조정은 왜구가 양광도 해안 지역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에 대한 방비책으로써 12월에 判典儀寺事 金仕寶를 兵馬使로 임명하여 양광도의 濱海州縣을 노략질하는 왜구를 막도록 하였고,⁹⁾ 이듬해 4월에는 郭璇을 楊廣全羅道體察使로 임명하여 장수와 수령들의 대비 상황을 점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¹⁰⁾

1376년(우왕 2)부터 왜구는 양광도 해안 지역을 침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錦江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강과 인접한 지역을 약탈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내륙 침입을 감행하였다. 6월에 林州(부여군 임천면)를 침략하기 시작하여 7월에는 扶餘, 公州, 石城(부여군 석성면), 朗山(익산시 낭산면), 豐堤(익산시 용안면) 등 금강 유역의 여러 주현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¹¹⁾ 당시 왜구의 침입 지역을 지도에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도 1〉 1376년 6~7월 왜구의 금강 유역 침입 상황



※ 지도에 표시된 지명은 왜구가 침입한 지역이고 원 안의 숫자는 사료 상에 기재된 순서를 나타낸다.

- 8) 『高麗史』 권133, 列傳46 辛禡 원년 11월·2년 7월.
 9) 『高麗史』 권133, 列傳46 辛禡 원년 12월.
 10) 『高麗史』 권133, 列傳46 辛禡 2년 4월.
 11) 『高麗史節要』 권30, 辛禡 2년 6월·7월.

위의 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살펴보면 대체로 금강에 인접한 지역이 왜구의 공격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침입 순서가 반드시 금강의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흐름과 일치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아마도 대규모의 왜구 집단이 이동하면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인근 군현을 동시다발적으로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¹²⁾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은 ㉓ 鼎峴이나 ㉔ 開泰寺 같이 州縣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다. 정현은 공주시 탄천면 정터리 지역에 있는 고개이다. 우리말로는 ‘솔고개’라고 부르며 부여에서 공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 왜구는 부여를 노략질하고 다음으로 공주에 침입하였는데, 牧使 金斯革이 이곳 정현에서 맞서 싸웠으나 패배하는 바람에 마침내 공주가 함락되었다고 한다.¹³⁾ 이는 왜구가 금강을 따라 내륙으로 침입하는 과정에서 수로뿐만 아니라 육로를 통해서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왜구는 석성을 노략질하고 내륙 안쪽에 위치한 連山(논산시 연산면)으로 가서 開泰寺를 공격하였다. 당시 개태사는 紅巾賊의 침입 이후 개경의 奉恩寺를 대신하여 太祖의 眞影을 봉안한 眞殿寺院으로 기능하고 있었으며,¹⁴⁾ 江華로 수도를 옮기려 할 때나 淸州에서 개경으로 還都할 때에도 개태사의 태조 영전에 가서 점을 치게 하는 등¹⁵⁾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찰이었다. 따라서 개태사가 大刹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식량이나 재물이 많았을 것이며 그로 인해 왜구의 주요 약탈 대상이 되었으리라고 짐작된다. 이때 양광도 지역의 방어 임무를 맡은 박인계는 왜구가 석성에서 연산으로 향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개태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결국 박인계가 전투

12) 정영현, 앞의 글, 180쪽.

13) 『高麗史』 권133, 列傳46 辛禡 2년 7월.

14) 김갑동, 「開泰寺의 創建과 그 動向」, 『白山學報』 83, 2008, 382쪽.

15) 『高麗史』 권40, 世家40 恭愍王 11년 8월 庚戌·12년 정월 壬寅.

중에 낙마하여 피살됨으로써 개태사는 왜구의 손에 도륙되고 말았다. 이후 왜구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7)낭산과 (8)풍제 등 금강의 지류인 지금의 익산시 山北川 주변 지역을 약탈하였다.

한편 최영은 지난해 왜구가 양광도의 연해 주현을 침입했을 때부터 이미 한 차례 토벌을 자청한 일¹⁶⁾이 있었는데, 개태사와 박인계의 비보가 전해지자 60여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시 직접 양광도의 왜구를 소탕하려고 하였다. 우왕과 여러 장수들은 노령을 이유로 만류하였으나 그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듭 자신의 출정을 요청하였다. 첫째는 지금 시기를 놓치고 막지 않는다면 나중에 왜구를 도모할 수 없고, 둘째로 다른 장수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며, 셋째는 병사들도 평소에 훈련되지 않아서 쓸 수 없다는 것¹⁷⁾이었다. 마침내 우왕이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허락하니 최영은 麾下를 이끌고 양광도로 급히 내려갔다. 이후 홍산 전투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록이 참고 된다.

가. 최영이 楊廣道都巡問使 崔公哲, 助戰元帥 康永, 兵馬使 朴壽年 등과 함께 홍산에 이르렀는데, **왜구가 먼저 험하고 좁은 곳에 의거하였다(倭先據險隘)**. 3면이 모두 절벽이고 오직 길 하나만 통할 수 있었다. 여러 장수들이 두려워하고 겁내어 나가지 못하자 최영이 몸소 사졸에 앞서서 날카롭게 돌진하니 적은 바람에 쓸리듯 넘어졌다. 적 하나가 숲 속에 숨어서 최영을 쏘아 입술을 맞혔는데,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얼굴빛이 변하지 않고 적을 쏘니 시위 소리와 함께 쓰러뜨렸다. 이에 화살을 뽑고 더욱 힘을 내어 싸우니 마침내 적들을 크게 패배시키고 거의 다 없애버렸다. 사람을 보내어 승첩을 올리니 최영에게 옷·술·안장·말을 하사하였다. — 『高麗史節要』 권30, 辛禡 2년 7월.

16) 『高麗史節要』 권30, 辛禡 원년 9월.

17) 『高麗史』 권113, 列傳26 崔瑩, “倭屠連山開泰寺元帥朴仁桂敗死 瑩聞之 自請擊之 禍以老止之 瑩曰 蕞爾倭寇肆暴如此 今不制後必難圖 若遣他將未必制勝 兵不素鍊亦不可用 臣雖老 志則不衰 但欲安宗社衛王室耳 願亟率麾下往擊 請之再三 禡許之”

나. 당시 왜구는 노략자를 배에 태우고 장차 돌아가려는 듯이 내보이면서 몰래 정예 수백 명을 보내어 깊이 쳐들어가 노략질하였는데, 가는 곳마다 바라보기만 하고 감히 막는 자가 없었다. 홍산에 이르자 사람들을 크게 죽이거나 잡아가는 등 기세가 매우 강성하였다. 최영이 양광도도순문사 최공철, 조전원수 강영, 병마사 박수년 등과 함께 홍산에 갔다. 전투에 앞서 **최영이 먼저 험하고 좁은 곳에 의거하였는데(鎿先據險隘)** 3면이 모두 절벽이고 오직 길 하나만 통할 수 있었다. 여러 장수들이 두려워하고 겁내어 나가지 못하자 최영이 몸소 사졸에 앞서서 날카롭게 돌진하니 적은 바람에 쓸리듯 넘어졌다. 적 하나가 숲 속에 숨어서 최영을 쏘아 입술을 맞혔는데,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얼굴빛이 변하지 않고 적을 쏘니 시위 소리와 함께 쓰러뜨렸다. 이에 맞은 화살을 뽑고 최영이 더욱 힘을 내어 싸우니 마침내 적들을 크게 깨뜨리고 사로잡거나 베어서 거의 다 없애버렸다. 최영이 判事 朴承吉을 보내어 승첩을 올리자 우왕은 크게 기뻐하며 박승길에게 白金 50兩을 하사하였고 三司右使 石文成을 보내어 최영에게 옷·술·안장·말을 하사하였다. 또한 醫 魚伯諤을 보내어 약을 가지고 가서 상처를 치료하게 하였다. — 『高麗史』 권113, 列傳26 崔瑩.

위의 두 사료는 대체로 내용이 일치하고 있으나 밑줄 친 부분에서 누가 먼저 험하고 좁은 곳에 의거하였는지가 달리 기록되어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여러 장수들이 겁내어 진격하지 못한 점을 들어서 문맥상 『高麗史節要』의 내용이 보다 논리적이며, 『高麗史』의 ‘鎿先據險隘’라는 기록에 ‘鎿’은 ‘倭’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생겨난 실수로 보았다.¹⁸⁾ 이러한 지적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사료 나)를 보면 분명히 왜구가 최영보다 먼저 홍산에 당도하여 노략질을 자행하고 있었다. 더욱이 험하고 좁은 곳은 방어에 유리한 형세인데 백전노장인 최영이 굳이 그와 같은 지리적 이점을 버리고 겁을 내는 장졸들의 선두에 서서 용맹하게 돌격할 필요가 있었을까. 관련 문헌을 보면 ‘홍산 전투에서 최영과 휘하 사졸이 앞을 다투어 말을 달려서 짓밟았다’라는 기록¹⁹⁾이 있다. 여기에서 최

18) 李嶺, 「홍산·진포·황산 대첩의 역사지리학적 고찰」, 『日本歷史研究』 15, 2000, 7~8쪽.

19) 『高麗史節要』 권30, 辛禱 3년 3월, “時有童子 自賊中逃還 諸將召問賊所爲 對曰

영과 함께 돌격한 휘하 사졸이 騎兵이었다는 점은 최영이 아니라 왜구가 험하고 좁은 곳에 의거하였다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처럼 홍산 전투는 금강 유역에 침입한 왜구에 의하여 박인계가 피살되고 개태사가 약탈당한 것이 원인이었으며, 최영이 노령을 무릅쓰고 출전하여 지리적 우세를 안고서 농성하는 왜구를 맞아 용맹을 발휘함으로써 고려군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8월에 최영이 개경으로 돌아오자 우왕은 마치 詔使를 맞이하는 예식처럼 성대한 개선식을 열어주었으며, 9월에는 전공을 논하여 최영을 侍中으로 임명하려 했으나 그가 굳이 사양하여 鐵原府院君으로 삼고 나머지 군사들은 차등 있게 제수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홍산 전투의 論功行賞은 그리 공평하지 않았던 듯하다. 위의 사료에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은 全羅道元帥 柳滌이 密直副使商議로 임명되었는데, 유영은 최영의 처조카(妻姪)로서 최영이 아꼈고 조정에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超拜하였다는 것이다.²⁰⁾ 또한 당시 이인임과 池癩이 政房提調로 있으면서 권세를 휘둘러 종군하지 않아도 벼슬을 얻은 자가 심히 많았다는 기록²¹⁾이 확인된다. 아무튼 9월의 논공행상을 끝으로 홍산 전투는 마무리되었다.

3. ‘鴻山大捷’의 결과와 의의에 대한 재검토

최영의 홍산 전투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나세 등의 진포싸움, 이성계의 황산대첩, 정지의 남해대첩 등과 함께 ‘大捷’으로 거론

賊常言所可畏者 唯白髮崔萬戶而已 曩日鴻山之戰 崔萬戶至 則麾下士卒爭先躍馬 蹴踏我衆 甚可畏也”

20) 『高麗史』 권113, 列傳26 崔瑩.

21) 『高麗史節要』 권30, 辛禰 2년 9월.

되어 40년 동안에 걸친 왜구와의 싸움에서 가장 大書特筆할 만하다고 평가되었다.²²⁾ 이러한 시각은 1960~70년대의 民族主義的 歷史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후 왜구와 관련된 연구나 서술²³⁾에서 그대로 답습되었고, 홍산 전투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점차 ‘대첩’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주지하듯이 대첩의 사전적 의미는 큰 승리를 뜻하며 대개 다수의 적을 상대로 꺾을 만한 전과를 거두거나 전쟁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붙일 수 있는 말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홍산 전투의 승리는 왜구에게 최영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었고 왜구의 세력이 점차 약해지는 계기로 파악되었다.²⁴⁾ 군사적인 시각에서도 홍산 전투의 승리가 금강 연안의 내륙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왜구의 기도를 저지하였을 뿐 아니라 양광도 지역 일대에 침구한 왜구의 세력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되었다.²⁵⁾ 최근에는 홍산 전투가 왜구 병력의 규모에 승리의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의 사기를 꺾고 아군의 자신감을 회복케 한 점에서 ‘큰 승리(大捷)’로 평가될 가치가 있다고 파악하기도 하였다.²⁶⁾ 이러한 연구 경향을 반영하여 과거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같은 교육 관련 도서는 물론이고 최근 육군본부 군사연구소에서 발간된 軍史概說書인 『한국군사사』에서도 홍산 전투는 ‘홍산대첩’으로 표기되었다.²⁷⁾

22) 金庠基, 『高麗時代史』, 東國文化社, 1961, 769쪽.

김상기는 자신의 사관이나 역사이론에 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여러 논고를 통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비롯하여 외세의 침략에 능동적으로 저항한 역사적 사실을 부각시킨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음이 확인된다(이성규, 「김상기」,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下)』, 창작과비평사, 1994, 270~272쪽). 왜구와의 싸움에서 특별히 ‘대첩’을 언급한 것도 그러한 범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3) 李鉉淙, 앞의 책, 223쪽. 孫弘烈, 앞의 글, 44~47쪽.

24) 孫弘烈, 앞의 글, 45쪽.

25) 崔炳鈺 외, 앞의 책, 101쪽.

26) 이영, 앞의 책, 2007, 127~128쪽.

최영이 홍산 전투에서 왜구를 격퇴한 사실에 대하여 관련 문헌을 보면 ‘크게 깨뜨렸다(大破)’²⁸⁾ 또는 ‘크게 패배시켰다(大敗)’²⁹⁾ 등으로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문구는 자연히 ‘대첩’의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지만, 동시대에 있었던 전투에서 그와 같은 사례는 간간히 확인된다. 홍산 전투와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 석달 뒤에 邊安烈, 羅世, 趙思敏 등이 扶寧(부안군)을 침입한 왜구를 ‘크게 깨뜨렸다(大破)’는 기록이 보인다.³⁰⁾ 따라서 ‘대첩’의 여부는 단순 기록만을 토대로 판가름할 수 없고 전투의 규모와 성과를 비롯하여 전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다양한 검토가 요구된다.

먼저 홍산 전투에서 고려군이 거둔 전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사료 나)의 첫 부분을 보면 왜구가 노약자를 배에 태우고 돌아가는 것처럼 내보이며 몰래 정예 수백 명을 보냈다는 내용이 주목된다. 그리고 언급하였듯이 금강 유역을 침입한 왜구는 일정한 방향으로 단일하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주변 지역을 약탈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소기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노약자를 배에 태워서 돌아가는 왜구의 무리가 바로 금강 유역의 침입을 주도한 本隊에 해당하며, 홍산에 침입한 정예는 주변 지역으로 흩어져 약탈 활동을 전개한 일종의 別動隊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최영이 홍산 전투를 마치고 개설했을 때에 우왕은 주연을 배설해주었는데, 여기에서 우왕과 여러 재상들이 최영에게 적의 규모를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최영은 적의 수를 알 수 없으나 그리 많지 않았고 만약 많았다면 자신이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27) (제6차 교육과정)『고등학교 국사(상)』, 교육부, 1996, 168쪽 지도 <홍건적과 왜구의 격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97쪽.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4 고려Ⅱ』, 경인문화사, 2012, 266쪽 지도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28) 『高麗史』 권113, 列傳26 崔瑩.

29) 『高麗史節要』 권30, 辛禱 2년 7월.

30) 『高麗史節要』 권30, 辛禱 2년 10월, “倭寇扶寧 邊安烈羅世趙思敏等 進擊大破之”

답변하였다.³¹⁾ 따라서 최영이 섬멸한 홍산의 왜구는 어디까지나 별동대에 불과하며 수백 명으로 기록되었으니 아무리 많아도 1천 명을 넘지는 않았을 것이다.³²⁾ 아울러 최영이 고전했다는 언급으로 미루어 보아서 최영의 휘하 병력도 그와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으리라고 짐작된다.

최영이 홍산에서 격퇴한 왜구의 규모에 대해서는 ‘사로잡거나 베어서 거의 다 없애버렸다(俘斬殆盡)’라는 기록이 전부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홍산 전투와 함께 ‘대첩’으로 열거된 전투 가운데 전공이 비교적 확실하게 기록된 남해대첩을 살펴보면, 鄭地는 겨우 전함 47척을 이끌고 적선 120척을 맞아 싸웠는데 적선 1척당 140명이 승선한 것을 총 17척이나 격파했다고 하였으니³³⁾ 거의 2천 4백 명을 섬멸한 셈이다. 진포대첩은 羅世·沈德符·崔茂宣 등이 1백 척의 전함을 이끌고 진포에 정박한 적선 5백 척을 화포를 이용하여 불사르니 살아남은 적이 330여 명에 불과하였다고 한다.³⁴⁾ 황산대첩은 李成桂 등이 10배나 되는 왜구와 맞서 싸워 이겼는데, 적은 겨우 70여 명만 지리산으로 달아났고 1천6백여 필의 말을 노획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³⁵⁾ 특히 이들 경우는 다소 과장된

31) 『高麗史』 권113, 列傳26 崔瑩, “及入見禍賜酒問曰 賊衆幾何 對曰 未能的知其數然不多 諸相又問曰 賊若多此老幾不生矣”

32) 홍산 전투가 있는 지 두 달 뒤인 이해 9월에 古阜·泰山 등을 침입한 왜구가 3백여騎였으므로(『高麗史』 권112, 列傳25 柳淑 附實) 홍산에 들어온 왜구도 대략 그와 비슷한 규모가 아닐까 추측된다.

33) 『高麗史節要』 권32, 辛禡 9년 5월, “海道元帥鄭地 擊倭于南海縣 大敗之 時地所將戰艦 僅四十七艘 次羅州木浦, 賊船百二十艘大至 慶尙沿海州郡大震 … 賊以大船二十艘 艘置勁卒百四十人爲先鋒 地進攻大敗之 焚賊船十七艘 浮尸蔽海”

34) 『高麗史節要』 권31, 辛禡 6년 8월, “遣海道元帥羅世沈德符崔茂宣 以戰艦百艘追捕倭賊 … 倭賊五百艘 入鎮浦口 以巨絙相維 分兵守之 … 羅世沈德符崔茂宣等至鎮浦 始用茂宣所製火砲 焚其船 煙焰漲天 賊燒死殆盡 赴海死者亦衆 … 唯三百三十餘人 自拔而來”

35) 『高麗史節要』 권31, 辛禡 6년 9월, “遂大破之 川流盡赤 六七日色不變 人不得飲 皆盛器候澄 久乃得飲 獲馬一千六百餘匹 兵仗無算 初賊十倍於我 唯七十餘人 奔智異山”

기록일지도 모르지만 “떠 오른 시체가 바다를 덮었다(浮尸蔽海)”거나 “냇물이 온통 붉어져 일주일도 지나도 마실 수가 없었다(川流盡赤 六七日色不變 人不得飲)”라고 하는 등 왜구의 처참한 패배 상황에 대한 묘사가 첨부되어 있다. 요컨대 홍산 전투는 ‘대첩’으로 열거된 다른 전투와 달리 양측의 병력 규모나 고려군이 거둔 전과가 비교적 소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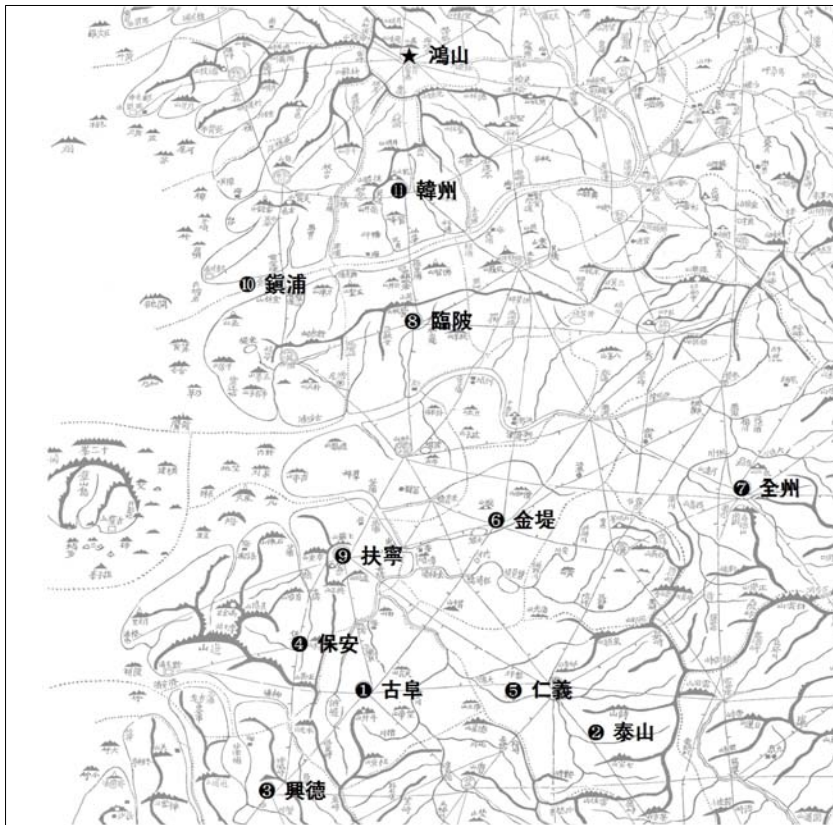
물론 홍산 전투의 관련 문헌이 조선시대에 편찬되었으므로 신왕조를 개창하는 과정에서 태조 이성계의 정적이 되는 최영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록의 첨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 등에 기록된 최영의 모습은 장군으로서의 활약이 주를 이루며 객관적인 역사서술 방법을 취한듯하면서도 이성계 중심에서 해석되고 있다.³⁶⁾ 이러한 문제는 당대집권자 중심의 역사서술인 正史 외에 다른 자료를 통해서 보완되어야 하는데, 관련 기록이 부족한데다가 첨삭 여부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홍산 전투에서 거둔 최영의 전공이 축소 기록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홍산 전투는 이성계와의 관련성이 찾아지지 않고 威化島回軍으로 인해 두 사람의 정적 관계가 형성되는 시점보다도 십여 년이나 앞서고 있다. 또한 『고려사』 최영전을 보면 홍산 전투보다 앞서 벌어진 耽羅 牧胡의 亂을 최영이 진압하는 내용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유독 홍산 전투의 전공만을 축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검토할 것은 홍산 전투의 승리가 향후 전황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는지의 여부이다. 선행 연구는 홍산 전투의 승리로 인하여 왜구의 세력이 점차 약해지거나 금강 유역을 비롯한 양광도 지역

36) 백은영, 「문헌설화와 구비전승에 나타난 고려의 기억—문화적 기억 속의 최영(崔瑩)장군—」, 『한국중세사연구』 23, 2007, 101쪽.

일대의 왜구 세력을 크게 위축시켰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양광도 지역의 왜구는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한두 달 정도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금강 유역의 남방에 위치한 전라도 서북부 지역은 오히려 홍산에서 물러난 왜구의 극심한 약탈에 시달려야만 했다.³⁷⁾ 당시 왜구의 침입 지역을 지도에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도 2> 1376년 9~10월 왜구의 전라도 서북부 지역 침입 상황



※ 지도에 표시된 지명은 왜구가 침입한 지역이고 원 안의 숫자는 사료 상에 기재된 순서를 나타낸다.

37) 허인욱, 앞의 글, 98쪽.

홍산 전투에서 패배한지 두 달 뒤인 9월부터 왜구는 古阜(정읍시 고부면), 泰山(정읍시 태인면), 興德(고창군 흥덕면), 保安(부안군 보안면), 仁義(정읍시 태인면), 金堤(김제시), 長城(장성군 장성읍), 臨陂(군산시 임피면) 등 전라도 서북부 지역을 맹렬하게 침입하였고 한때 全州를 함락하기도 하였다.³⁸⁾ 이로 인해 윤9월에는 서해의 뱃길이 막히게 되어 급기야 漕運을 중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전라도와 양광도의 沿海州郡에 부과된 徭役을 차등 있게 감면해주는 조치를 내렸다.³⁹⁾ 왜구는 점차 북상하여 10월에 鎭浦와 韓州(서천군 한산면)를 공격하기에 이르렀으니,⁴⁰⁾ 결국 홍산 전투 이후 몇 달도 안 되어 다시 금강 유역을 침입한 것이다.

이듬해 왜구는 계속 북상하여 양광도 북부 해안의 新平(당진시 신평면), 慶陽(천안시), 平澤을 거쳐서 과감히 江華府를 침범하고 西江에 진입하는 등⁴¹⁾ 개경을 공격할 기회를 계속해서 노렸다. 이로 인해 우왕은 耆老를 모아 놓고 내지인 鐵原으로 遷都하자는 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⁴²⁾ 당시 개경이 받았던 왜구의 압박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홍산 전투 이후 왜구의 침략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맹위를 떨치고 있는 양상이므로 이전에 비하여 전황이 크게 나아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어서 고려군이 과연 홍산 전투의 승리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왜구의 사기와 예봉을 꺾을 수 있었는지 확인해보겠다. 홍산 전투 바로 직전인 7월에 왜구가 全羅道元帥營을 침입하고 榮山(榮山浦)에 있던 고려군의 전함을 불태웠으며 羅州를 침입한 사건이

38) 『高麗史節要』 권30, 辛禑 2년 9월.

39) 『高麗史節要』 권30, 辛禑 2년 윤9월.

40) 『高麗史節要』 권30, 辛禑 2년 10월.

41) 『高麗史節要』 권30, 辛禑 3년 2월·3월·4월.

42) 『高麗史節要』 권30, 辛禑 3년 5월.

있었는데, 全羅道元帥 河乙沚가 후임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旆州農莊에 들어가 버리면서 방비가 소홀해진 것이 원인이었다.⁴³⁾ 그런데 홍산 전투의 승리 이후에도 고려군의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9월에 하을지의 후임인 전라도원수 柳灑는 전라도 북부 지역이 왜구의 침입을 연이어 당하는 상황에서 음악과 여색에 빠져 있었고, 심지어 전주가 함락되었을 때에도 墜馬를 사칭하며 군사를 그대로 두고 싸우지 않았다. 또한 全羅道兵馬使 柳實은 자신의 관할인 泰山郡이 왜구의 침입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토벌을 겁내어 마침내 패전을 자초하게 되었다.⁴⁴⁾ 12월에 慶尙道元帥兼都體察使 金縝은 倡妓를 모아서 매일 燒酒를 마시고 사졸들을 핍박하여 군중의 원성을 사는 바람에 경상도의 여러 주현이 왜구에게 도륙을 당하게 되었다고 한다.⁴⁵⁾ 이처럼 홍산 전투를 전후하여 그리 멀지 않은 기간 동안에 한 지역의 방위를 담당하는 지휘관들이 직무에 태만하여 왜구를 제대로 막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위와 같이 홍산 전투의 의의에 대하여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기존 견해를 재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홍산 전투는 동원된 병력의 규모나 전과가 불분명하고 추후 전황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므로 ‘대첩’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홍산 전투가 지닌 역사적 의미는 무엇에서 찾을 수 있을까.

첫째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홍산 전투의 승리는 양광도 지역의 왜구를 일시나마 물러나게 하였다. 당초 최영의 출정 계기는 왜구가 금강 유역에 침입하여 갖은 횡포를 자행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최영이 홍산에서 격퇴한 왜구가 비록 별동대와 같은 존재였고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일단

43) 『高麗史節要』 권30, 辛禱 2년 7월.

44) 『高麗史節要』 권30, 辛禱 2년 9월·윤9월.

45) 『高麗史節要』 권30, 辛禱 2년 12월.

전투를 벌여서 왜구를 응징하였고 한두 달 동안은 양광도 지역에서 왜구의 별다른 침입 흔적이 찾아지지 않고 있으므로 본래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최영은 양광도 지역에 남아 있는 왜구 집단을 더 이상 추격하거나 소탕하지 않았으며 홍산에서 한 차례 승리를 거두고는 개경으로 귀환하였다. 만약 최영의 출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⁴⁶⁾

둘째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홍산 전투의 승리는 朝野를 안정시키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금강 유역에 침입한 왜구가 한때 어진 장수로 일컬어진 양광도원수 박인계를 살해하고 국가의 중요 사찰인 개태사마저 도륙하였다는 소식이 개경에 전해지자 조정과 민심은 크게 흔들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개경에서 왜구가 장차 都城을 노략질한다는 소문이 나돌자 밤중에 坊里軍을 징발하여 성을 지키게 하였고, 다시 왜구가 장차 松岳山에 오르려고 한다는 말이 들리자 僧軍을 징발하여 요해처에 나누어 지키도록 하였다는 사실⁴⁷⁾을 통해서 입증된다. 결과적으로 단지 소문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왜구를 적잖이 두려워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영이 홍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마치 詔使를 맞이하는 예식처럼 성대한 개선식을 열어줌으로써, 최영을 비롯한 장졸들을 예우함은 물론이고 왜구로 인해 동요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 잡는 정치적 선전 효과도 충분히 기대되었을 것이다.

46)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최영이 홍산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인데, 기록이 충분치 않아 부상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진에 돌격하거나 차후 행적에 특별히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거동에 지장을 줄 만큼의 치명상은 아닌 듯하다. 또한 최영은 내외에 무용이 널리 알려진 名將이었고 고려군의 정신적 지주였던 만큼, 이미 승리를 거둔 상황에서 구태여 무리하게 더 이상 전투를 속행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47) 『高麗史節要』 권30, 辛禰 2년 7월, “訛言倭將寇都城 夜半發坊里軍守城 又聞賊將先登松岳山 發僧爲軍 分守要害”

셋째로 상징적인 측면에서 홍산 전투의 승리는 부수적으로 왜구에게 최영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홍산 전투가 있기 전에 고려군은 각지에서 왜구를 막아내는 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예를 들면 양광도의 경우 양광도안무사 정비와 양광도도순문사 한방언이 왜구를 방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좌천되었고, 전라도에서는 원수 하을지가 방비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왜구가 군영을 침략하고 전함을 불살랐으며, 마찬가지로 경상도에서도 都巡問使 曹敏修가 金海府와 大丘縣에서 패전⁴⁸⁾하여 다수의 인명 손실을 입었다. 다시 말해 고려군은 왜구와의 싸움에서 전반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영은 직접 양광도로 내려가 왜구를 소탕함으로써 그들의 기세를 꺾고 고려군의 사기를 북돋으려고 하였다.⁴⁹⁾ 앞서 그가 출정을 자청하면서 제시한 이유 중에 “지금 시기를 놓치고 막지 않는다면 나중에 왜구를 도모할 수 없고, 다른 장수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은 필승 의지와 함께 당시 승리가 절박한 고려군의 처지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홍산 전투의 승리를 통하여 일종의 국면 전환을 모색했다고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전환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신 홍산 전투는 왜구에게 최영이라는 인물에 대한 공포를 각인시키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다음해 왜구의 진영에서 도망쳐 온 어린 아이에 의하면 왜구가 “지난날 홍산의 싸움에서 崔萬戶(최영)가 오자 휘하 사졸이 앞을 다투어 말을 달려서 우리를 짓밟았으니 매우 두렵다.”라고 말한 사례⁵⁰⁾나, 왜구가 “두려운 자는 오직 백발의 최만호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경계하였다는 기록⁵¹⁾ 등이 그러한 사실을 나타낸다.

48) 『高麗史節要』 권30, 辛禡 1년 11월.

49) 이영, 앞의 책, 2007, 105~106쪽.

50) 각주 19번 참조.

51) 『高麗史節要』 권30, 辛禡 3년 3월, “賊常言所可畏者 唯白髮崔萬戶而已”

요컨대 홍산 전투의 승리는 왜구의 침입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첩’이라고 명명할 만큼의 탁월한 성과는 없었지만, 당시 고려 조정이나 군대가 직면한 정치적 또는 군사적 상황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바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나름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4. 홍산 전투의 戰場 문제

홍산 전투에 대한 기존 평가와 함께 전장으로 알려져 있는 장소도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되어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홍산 전투의 무대가 되는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은 인구가 3,600명(2007년 기준)⁵²⁾에 불과한 작은 곳이다. 고려시대에는 嘉林縣(부여군 임천면)의 屬縣이었고 1175년(명종 5)에는 韓山監務가 겸임하도록 하였으며 조선시대인 1413년(태종 13)에야 비로소 縣監을 두었다.⁵³⁾ 세종대에는 348호 1,791명이 살았고 비옥한 토지가 적은 편이었다고 전한다.⁵⁴⁾

현재 홍산 전투의 전장으로 비정되는 장소는 홍산면 북촌리 산 12번지 일대에 위치하여 일명 北村里山城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胎峰山城이다. 태봉산(160m)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능선의 가장 끝자락에 해당하는 해발 90m의 봉우리(다음 <사진 1>의 왼쪽 사진 참조)에 자리하고 있으며, 테피식 산성으로 75m 등고선과 나란히 축조되었고 둘레는 440m이며 2000년에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52) 부여군 편, 『비홍산의 품자락』, 부여군, 2008, 11쪽.

53)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9, 忠淸道 鴻山縣.

54) 『世宗實錄』 권149, 地理志 忠淸道 公州牧 鴻山縣.

당시 홍산현의 인구는 현재 부여군에 해당하는 임천군, 홍산현, 부여현, 석성현 중에서 임천군 다음으로 인구가 많았다.

제368호로 지정되었다.⁵⁵⁾ 산성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서남쪽에 조성된 약 250m 길이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서 올라가야 하는데 (아래 <사진 1>의 오른쪽 사진 참조), 지그재그 형태로 제법 경사가 있으며 자동차 한 대만이 겨우 지날 있는 폭이다. 산성 내부의 최정상부에는 평탄지가 조성되어 체육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胎峰樓라는 팔각정자와 함께 鴻山大捷碑가 세워져 있다.

<사진 1> 동남쪽(왼쪽)과 상공(오른쪽)에서 바라본 태봉산성 전경⁵⁶⁾



선행 연구도 태봉산 체육공원이 있는 야산을 홍산 전투의 전장으로 파악하고 있다.⁵⁷⁾ 이에 의하면 현재 산성으로 오르는 길이 최영이 단기로 돌격한 그 길이였는지 여부는 확실하게 입증할 수 없으나, 산성의 3면이 절벽에 가까운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정상으로 접근하는 다른 길이 없으므로 현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고려사』에 언급된 ‘3면이 모두 절벽이고 오직 길 하나만 통할 수 있었다(三面皆絶壁 唯一路可通)’는 현장 지형에 관한 기록이 상당히 정확함을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확신하였다.

그런데 태봉산성을 홍산 전투의 전장으로 보기에는 다음과 같이

55) 부여군 편, 앞의 책, 180~181쪽.

56)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문화재연구팀, 『부여 홍산 태봉산성 문화유적 시굴조사 부여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부지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9, 9쪽 도판 인용.

57) 李頌, 앞의 글, 2000, 12~13쪽.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世宗實錄』 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등과 같은 조선초기의 官撰 地理志를 비롯하여 1871년(고종 8)에 간행된 『鴻山縣誌』에도 태봉산성이나 홍산 전투에 관한 언급이 일체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문헌상 태봉산성이 홍산 전투의 전장임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 다음으로 2007년에 이루어진 발굴 조사에 의하면 아직까지 태봉산성에서 왜구와 접전을 벌였던 뚜렷한 고고학적 근거를 찾아내지 못하였다고 한다.⁵⁸⁾ 다만 태봉산성이 고려시대에 축성되었으며 성벽 아래층에서 성벽 이전에 존재했던 유구가 발견되고 백제시대의 유물이 출토됨으로써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만이 확인되었다. 결국 태봉산성이 홍산 전투의 전장으로 비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헌 기록의 뒷받침은 물론이고 발굴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1977년부터 文化公報部の ‘문화재 보수 3개년 사업’⁵⁹⁾이 시행되면서 홍산대첩비가 태봉산성 정상에 세워지고 성내 지역이 산성 공원으로 조성된 일이 주목된다. 특히 홍산대첩비의 내용을 읽어보면 대체로 『고려사』 최영전의 기록에 의거하여 다소 첨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최영이 다른 장수들과 함께 먼저 ‘險峻하고 三面이 絶壁인 이곳 胎峯山에 陣을 치고 있을 때 數百名の 倭寇들이 鴻山 巔에 몰려들자’⁶⁰⁾라고 하는 부분이 확인된다. 다시 말해 충분한 사료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봉산을

58)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문화재연구팀, 앞의 책, 85쪽.

59) 이는 ‘國難克服史를 통하여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護國戰迹地와 有備無患의 민족적 결의가 담겨져 있는 重要國防史蹟地를 歷史教育道場으로 淨化한다’는 목표 하에 시행되었다(鄭基永, 「文化財 補修 三箇年 事業 推進現況(概報)—1977년~1979년—」, 『文化財』 13, 1980, 109쪽). 다시 말해 호국 유적을 중점 보수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함양하고 민족적 긍지를 높이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었다(「金陵直指寺·黃山대첩비등 올해안에 文化財115件補修」, 『東亞日報』, 1977.1.29, 7쪽. 「文公部の 올해 施策방향」, 『경향신문』, 1977.1.31, 5쪽).

60) 홍산대첩비의 전문은 부여군 편, 앞의 책, 27~28쪽에도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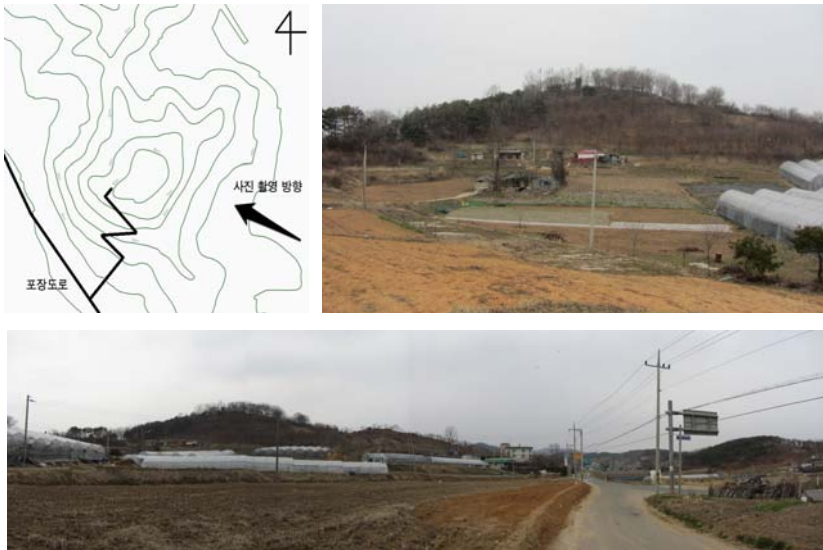
홍산 전투와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1980년대 이전에 간행된 『扶餘郡誌』와 『忠淸南道誌』에는 태봉산성과 홍산 전투를 연관시키는 서술이 찾아지지 않지만,⁶¹⁾ 1980년대 이후 간행된 『扶餘郡誌』와 『忠淸南道誌』 등에는 태봉산 정상에 홍산대첩비가 세워져 있음을 언급하거나 태봉산이 홍산 전투의 전장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서술이 들어가 있다.⁶²⁾ 따라서 태봉산성을 호국 유적으로 정비하고 홍산대첩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태봉산성을 홍산 전투의 전장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생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의심된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태봉산성을 홍산 전투의 전장이라고 보았을까. 아마도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서 언급된 ‘3면이 모두 절벽이고 오직 길 하나만 통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 태봉산성의 지형과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므로 그와 같은 비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싶다. 태봉산성을 언뜻 보면 사료의 설명과 일치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면밀히 살펴볼 경우 반드시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다. 앞에서 제시한 사료를 보면 홍산 전투의 전장은 동서남북 4면 가운데 3면이 절벽이고 남은 1면에 길이 있어서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지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태봉산성이 정상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경사가 있는 편에 속하기는 하나 해당 지형을 ‘絕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태봉산성의 서측이 가파른 것은 분명하지만 동측 능선은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다. 다음의 <사진 2>를 보면 왼쪽 지형도에서 절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기껏해야 포장도로가 있는 서남쪽 한 군데이며, 오른쪽과 아래쪽 사진에는 좌우 능선의 경사가 보통 산들과 비슷해 보이며 그다지 특별한 점을 찾을 수가 없다.

61) 『扶餘郡誌』, 扶餘郡誌編纂委員會, 1964. 『忠淸南道誌』 上·下, 忠淸南道誌編纂委員會, 1963. 『忠淸南道誌』 上·下, 忠淸南道誌編纂委員會, 1979.

62) 『扶餘郡誌』, 扶餘郡誌編纂委員會, 1987, 1234쪽.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충청학연구부, 『忠淸南道誌』 5,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06, 287쪽. 부여군 편, 앞의 책, 180~181쪽.

〈사진 2〉 태봉산성 지형도(왼쪽)와 동남쪽에서 바라본 모습(오른쪽과 아래쪽)



한편 봉우리 서남쪽에서 태봉산성으로 들어가는 포장도로 역시 반드시 사료에 나타난 길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서쪽이 다른 경사면에 비해서 가장 험하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사료상 길이 아닌 '3면이 절벽'인 곳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사진 2〉의 왼쪽 지형도에 보이는 지금의 포장도로는 아마도 홍산면소재지 또는 밀집 주거지와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접근 편의상 조성된 것이 아닐까 싶다. 만약 이 도로가 사료에서 언급된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면 실제로 전투 경험이 풍부한 최영이 일부러 가장 험준한 측면을 골라서 말을 타고 돌격한 셈이 된다. 요컨대 위와 같이 태봉산성을 홍산 전투의 전장으로 파악하는 것은 보류할 필요가 있다. 문헌 기록과 발굴 조사에서 모두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데다가 지형적으로도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다분히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홍산 전투의 전장을 어느 곳으로 비정해야 하는지 다른

대안이 요구된다. 현재 문헌 기록과 발굴 조사의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는 한은 홍산 전투가 어디에서 벌어졌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3면이 절벽이고 1면에 길이 있다는 기록에 착안하여 홍산 전투와 유사한 경우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례가 확인된다.

다. 왜적이 智異山에서 無等山으로 도망쳐 들어가 圭峯寺 바위 사이에 나무 목책을 세웠는데, 3면이 가파른 절벽이고 오직 작은 길이 벼랑을 따라 나 있어서 겨우 한 사람만이 지나갈 수 있다.⁶³⁾

위의 기록에 등장하는 규봉사는 현재 全羅南道 和順郡 二西面 永坪里에 있는 圭峰庵을 말한다. 이곳은 무등산(1,187m)의 동남부 해발 850m 고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우뚝 솟은 柱狀節理帶가 사찰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모습으로 유명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파른 절벽은 2~10m 높이에 달하는 주상절리대 암석을 말한다. 왜구는 무등산에서 주변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방어 태세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 3면이 바위에 둘러싸인 규봉사를 선택하였다. 이곳은 상공에서 보았을 때 태봉산성처럼 솟아오른 봉우리가 아니라 움푹 파이거나 들어간 모습을 하고 있다. 물론 규봉암과 같은 독특한 지형을 홍산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홍산에서 3면이 절벽이고 1면에 길이 있는 조건에 부합하면서 방어 효과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로 볼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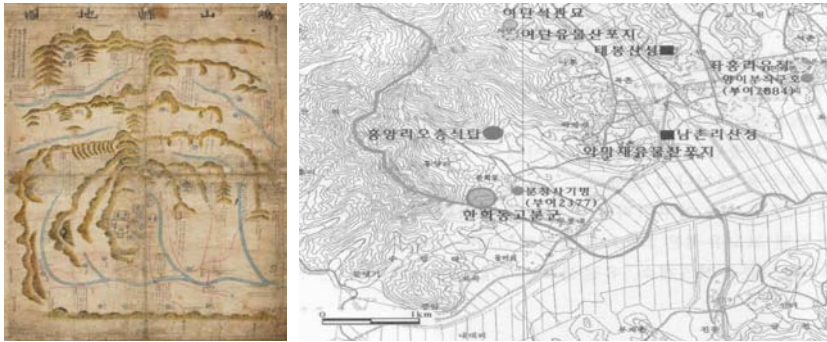
우선 홍산면의 지형적 특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홍산의 지형은 飛鴻勢라고 하여 기러기가 나는 형국이며 홍산이라는 지명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한다.⁶⁴⁾

63) 『高麗史』 권134, 列傳47 辛禰 7년 4월, “倭自智異山逃入無等山 樹柵圭峯寺巖石間 三面峭絕 唯小逕緣崖 僅通一人”

6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9, 忠清道 鴻山縣 驛院條, “宿鴻驛 古名非雄 我太宗元年 術者以縣有飛鴻勢 改今名”

특히 홍산의 鎭山인 飛鴻山(267m)은 그 이름처럼 기러기가 날개를 펼치며 나는 듯이 산등성이와 골짜기를 동서로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아래 <사진 3>의 「鴻山縣地圖」(1872년 제작 추정, 규장각 소장)를 통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무등산 규봉사처럼 주상절리대는 아니더라도 3면이 깎아지른 암석에 둘러싸인 사례는 홍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홍산의 지형적 특색을 감안한다면 3면이 절벽인 데다가 1면에 길이 있다는 홍산 전투의 지형적 조건은 3면이 山谷으로 둘러싸이고 溪流를 따라서 山下로 길이 나있는 경우, 즉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계곡의 형태에 가까운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 3> 「홍산현지도」(왼쪽)와 비홍산 동남쪽의 유적 분포도(오른쪽)⁶⁵⁾



이와 같은 유형은 홍산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방어 효과가 높은 곳은 관내에서 가장 험하다고 할 수 있는 비홍산 일대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곳은 현재 지형이 상당히 변모되었으나 골짜기 안쪽은 경사가 가파른 편으로 3면을 산이 에워싸고 1면에 길이 있어서 사료상에 나타난 전장의 모습과 비교적

65) 부여군, 앞의 책, 162·398쪽 도판 인용.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비홍산 동남쪽에는 고려시대 중기 이후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홍양리오층석탑(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9호)이 있는데, 주변에서 고려시대 기와편과 청자편이 수습되는 등 사원이 있었던 흔적이 확인된다.⁶⁶⁾ 이와 함께 고려시대 홍산현의 古邑城으로 비정되는 南村里城⁶⁷⁾도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있다(〈사진 3〉 오른쪽 지도 참조).

요컨대 비홍산 일대는 홍산 전투의 전장으로 비정할 수 있는 지형적 특징을 갖추면서도 왜구가 침입할 경우 주요 약탈 대상이 될 수 있는 읍치가 가깝고 사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현재 문헌 기록이나 발굴 자료가 근거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홍산면의 많은 골짜기 가운데 홍산 전투의 전장으로 구체적인 장소를 비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단언할 수는 없으나 굳이 전장으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꼽아 본다면 비홍산 일대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정할 뿐이다.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본고는 홍산 전투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고 ‘대첩’이라는 평가와 함께 현재 전장으로 비정되는 태봉산성의 문제점을 검토해보았다. 홍산 전투는 1376년 7월에 최영이 홍산 지역에서 금강 유역을 침입한 왜구를 격퇴한 사건이며 나세의 진포 대첩, 이성계의 황산대첩, 정지의 남해대첩 등과 함께 특기되어

66) 부여군, 앞의 책, 188~189쪽.

67) 남촌리성은 조선 초기에 폐성되었고 축조시기를 고려시대까지 올려볼 수 있을 만한 유물이 확인되고 있으므로(부여군 편, 앞의 책, 182~184쪽) 당시 홍산현의 읍치가 아닐까 추정된다.

이른바 ‘대첩’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홍산 전투에 동원된 병력의 규모나 전과가 불분명하고 추후 전황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을 검토하여 ‘대첩’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덧붙여 당시 왜구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 가운데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현안이 홍산 전투의 승리를 계기로 일부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파악하였다. 이어서 태봉산성을 홍산 전투의 전장으로 보는 인식은 태봉산성을 호국 유적으로 정비하고 홍산대첩비를 건립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며, 문헌 기록이나 발굴 조사가 전혀 뒷받침 되지 않았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관련 기록에 나타난 지형적 특성을 근거로 삼아 홍산 전투의 전장이 비홍산 일대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정해보았다.

이러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최영이라는 인물과 홍산 전투의 승리를 단순히 폄훼하려는 의도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역사적 사건이나 그것이 일어난 지역을 문헌 기록과 실제 지형에 대한 검토 없이 너무 성급하게 결론지었다는 경향이 있었음을 밝히고,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한편 비판과 함께 대안이 제시되지 않을 수 없는데, 현재 근거로 삼을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비약이나 억측 등 다소 문제가 있겠으나 말미에 짧은 견해를 제시해보았다.

[원고투고일: 2015.10.12, 심사수정일: 2015.11.20, 게재확정일: 2016.2.19.]

주제어 : 鴻山, 大捷, 崔瑩, 倭寇, 戰場, 胎峰山城, 飛鴻山

<ABSTRACT>

Relook on the Meaning of Hongsan Battle and its Battlefield in 1376

Lim, Hyung-soo

Hongsan (鴻山) battle was a combat which General Choi Young (崔瑩) defeated Japanese pirates (倭寇) who invaded Geum River (錦江) basin at the Hongsan region in July 1376 (2nd year of King Woo, 禡王), which is considered as one of great military victories over the course of 40-year fight against Japanese Pirates. The battle is worthy of special mention and is also assessed as a 'Sweeping Victory (大捷).' This study briefly summarizes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development happened in Hongsan Battle and reviews whether the battle could be really assessed as a 'Sweeping Victory' or not and whether the Taebong Mountain Fortress (胎峰山城) could be considered as valid battlefield.

This study pointed out that Hongsan Battle somewhat falls short of being assessed as a Sweeping Victory (大捷) in that not only the scale of military force mobilized and military accomplishments gained during the battle are unclear but also the battle did not have any significant effects on the features of the war even after the battle. And yet, the study evaluated that Hongsan Battle still holds significant historical meaning of its own in that it lived up to desperate requirements of the time to a certain degree even though it did not make accomplishments enough to satisfy expectations.

The study then examined if the recognition that the battlefield of Hongsan was Taebong Mountain Fortress is correct. This recognition was the result of establishment of Hongsan Memorial

Stone (鴻山大捷碑) in the process of designating Taebong Mountain Fortress as one of the remains of historical national protection in the late 1970s, which was a hasty outcome without the support of documentary records or excavation survey. Thus, careful comparison of geographical conditions with historical records of Hongsan Battle reveals considerable discrepancies. Although it is very difficult to assert any specific region as the battlefield of Hongsan Battle given the lack of related data available, as the result of assumption based on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which appeared in the historical data, there is high possibility that the battlefield was actually valleys around Bihong Mountain(飛鴻山).

Key Words : Hongsan (鴻山), Sweeping Victory (大捷), Choi Young (崔瑩),
Japanese Pirates (倭寇), Battlefield (戰場), Taebong Mountain
Fortress (胎峰山城), Bihong Mountain (飛鴻山)

